

漁港개발 ‘꽃피운 41年’

漁民과 政府와 국회가 어울려 이룩

손 정 식 <韓國漁港協會 회장>



日本漁港人들과 交驩하고 있는 孫회장(바른쪽)

어항협회 설립과 어항대회

사단법인 일본전국어항협회는 1948년에 설립되었으며 당시 일본은 전후의 황폐와 혼란으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때였고 특히 중요한 과제는 식량대책으로서 그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었다.

따라서 어회물의 생산증강이 수산업계에 강하게 요청되어 전쟁으로 가장 피해가 많았던 어선대책과 그 근거지인 어항시설의 복구정비를 급히 실시하여 어업생산활동의 원활화와 어민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전국어민들로부터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이 절실한 어민의 여론으로 수산업진흥시책 추진을 위하여 어항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이 협회는 어항시책에 관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요망결의의 장으로서 1949년부터 매년 전국어항대회를 개최하여 왔다.

이 대회는 전국어항 관계자의 총의를 결집하여 어항의 정비촉진 등을 도모할 목적에서 중앙과 지방에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대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

주최는 전국어항협회이나 각 都道府縣어항협회의 협찬에 의해서 개최되며 현재는 어항관계자의 일대제전으로서 정착하고 있다.

그외 각 都道府縣 어항협회에서도 각 지방별로 지방어항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 1 회 어항대회는 1949년 5월 25일 東京都 上野精養軒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때 어항의 기본법인 어항법의 조기제정과 전국어항망의 정비에 대하여 여론을

결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제41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어항대회에서는 어항의 정비추진과 아울러 어항관계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추진 등 어항관계정치력의 결집으로 어항의 개발추진에 크게 기여하는 수산계로서는 매우 큰 행사의 하나이다.

본직이 1989년 8월 16일자 일본전국어항협회 佐藤稔夫회장으로 부터 "일한우호친선을 한층 깊게하고 또 일본국 어항관계자의 충의를 건문토록 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제41회 전국어항대회에 초대한다"는 공한을 접수하고 그동안 상호노력의 결실로 양국협회의 우의가 매우 돈독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발족한지 불과 2년여에 지나지 않은 우리 어항협회가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일본 전국어항협회와의 깊은 유대를 갖는 것은 우리 협회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되어 이를 쾌히 승낙하고 1989년 10월 24일 김영환 이사과 같이 출발하여 제41회 전국어항대회에 귀빈으로 임석함과 아울러 어항관련 고위 공직자를 비롯하여 관계인사들과의 우호증진과 잘 정비되어 있는 어항 등을 시찰하고 10월 31일 귀국하였다. 여기에 이 행사에 참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어항대회 전야제

제41회 전국어항대회는 지난 10월 26일 靜岡市の 靜岡산업관에서 전국 어항협회 주최로 성대히 개최 되었다.

靜岡縣과 靜岡市 靜岡縣어항

●●

발족한지 불과 2년여에 지나지 않은 우리 어항협회가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일본 전국어항협회와 깊은 유대를 갖는 것은 우리 협회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

●●

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어항관계자 3천 3백여 명을 비롯하여 농림수산대신 (대리 정무차관 中川昭一) 국회의원 등 내빈다수가 참석했으며 본인과 김영환이사도 외빈으로 작년에 이어 참석하였다.

대회에 앞서 관례의 전야제인 어항대회 리셉션이 10월25일 밤 靜岡驛 북구의 靜岡터미널 호텔에서 靜岡市와 駿河灣이 한눈에 보이는 매우 전망이 좋고 쾌적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어항협회 靜岡縣어항협회, 지선의 靜岡縣 靜岡市 등 이번 대회 주최자의 환영 파티가 이 전야제이며 금년이 靜岡市가 발족한지 100주년, 靜岡城을 구축한지 4백년이 경과된 해이며 또한 이번 대회는 靜岡縣에서 두번째로 10여년 전에 30회 어항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다.

어항대회

10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제41회 전국 어항대회가 靜岡사업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개회에 이어 佐藤전국어항협회 회장은 주최자 인사에서 매우 어려운 정세속에 우리가 일치단결하여 제8차 어항정비계획을 추진함과 아울러 어항 어촌을 포함한 일체적인 연안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를 향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 어항정비 추진에 의한 어촌지역 활성화가 어업 진흥의 급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내빈축사에서 鹿野道彦 농수상 (대리 中川昭一 정무차관)은 「어항정비는 수산업진흥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 하였으며 이어서 近藤元次중의원 농림수산위원장 仲川幸男참의원 농림수산위원장은 「어항정비의 확충강화에 전력을 경주 하겠다」고 역설하였다.

그외 內村良英대일본수산회 회장, 齊藤滋與史 靜岡縣지사, 和田淳一郎현의회회장, 天野進吾 靜岡시장이 축사를 하고 服部毅一 靜岡縣어항협회장이 환영인사를 했다.

이어서 대회에 들어가 대회의장에 服部靜岡縣협회장, 부의장에 中谷岸造 高知縣어항협회 青山征二 石川縣어항협회의 양회장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에 들어 갔으며 佐藤吉明 靜岡縣어항협회 이사가 낭독한 대회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어서 의안 제 1 호에 제8차 어항정비 계획의 추진과 1990년도 예산증액 확보 (설명자 = 中西秀雄和歌山縣어항

大會가 끝난 다음 漁港의 노래가 熱唱됐다.

협회 부회장) 의안 제2호 · 어항·어촌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1990년도 예산증액 확보 (설명자 = 新谷莊一 岡山縣 항만어항협회 이사) 의안 제3호 · 제4차 해안사업 5개년계획의 촉진과 1990년도 예산증액 확보 및 차기 해안사업 장기계획의 조기책정 (설명자 = 魚津能一 富山縣 어항협회 감사) 의안 제4호 · 어항관계사업에 관한 지방 부담액의 경감 (설명자 = 佐藤弘 福島縣 항만어항협회 부회장)의 의안을 심의하여 모두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전국 어항협회 각 都道府縣의 어항협회 대표들로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정부관계당국과 국회에 진정할 것을 결정했다.

최후에 矢野照重전국어항협회 고문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으로 대회의 막을 내리고 폐회 후에는 작년 전국어항협회가 수산청 후원으로 제작한 「어항의 노래」를 중심으로 鳥羽一郎씨의 가요 콘서트트가 전개되고 또 예년과 같이 어항환경미화 캠페인, 어선해난유아육영 모금이 실시되고, 특산품의 전시와 즉매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대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회 결의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제8차 어항정비계획의 촉진과 1990년도 예산증액 확보
 - 200헤리체제정착화에 따라 주변수역의 유효이용,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유통가공체제 확립과 활력 있는 어촌형성을 위하여 1988년부터 6년간 총사업비 2조 4천 백억엔의 제8차 계획에 따라 수축 490, 항 개축 약 920,



항 기타 국부 개량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 사업은 그 총사업비 2조 4천 3백억엔에 대하여 2차년도인 금년도 실시전망은 2천7백 79억엔 진도 29%에 지나지 않는다.

1990년도는 매우 어려운 정세와 신시대에 즉응토록 하기 위하여 어항정비사업의 계획적보다, 강력촉진이 도모되도록 예산증액 확보를 강력히 요망한다.

- ② 어항 · 어촌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1990년도 예산증액 확보

- 어업, 어촌의 건전발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생산기반의 어항정비를 더하여 생활기반의 어업집락환경의 종합적 정비, 일하기 좋은 쾌적한 노동환경형성에 필요한 시설정비 등을 행하는

것이 현재 급무이다.

1990년도는 풍부하고 윤택한 어촌건설을 향하여 어업집락환경정비 사업의 확충강화 어항환경정비사업의 촉진을 도모하도록 예산증액 확보를 강력히 요망한다.

- ③ 제4차 해안사업 5개년 계획의 촉진과 1990년도 예산증액 확보 및 차기 해안사업 장기계획의 조기 책정

- 제4차 5개년계획은 1986년에서 1990년도까지 5개년 간에 농림수산, 운수, 건설의 3성이 총투자액 1조엔으로 해안의 보전과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1990년도는 이 계획의 최종년도로서 어업집락의 안전확보와 쾌적한 해안환경창출 등을 위하여 해안사업의 일층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 확보를 강력히 요망함과 아울러 해안정비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계속 차기계획의 조기 책정을 강력히 요망한다.

④ 어항관계사업에 관한 지방부담액의 경감

- 국가는 재정부담액 경감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5년 이후 공공사업에 대하여 고율 보조금 인하를 실시해 왔으나 이와 병행해서 지방부담증가는 자치체에 대하여 매우 큰 영향을 주며 특히 어항을 가지고 있는 시정촌은 벽지 이도가 많기 때문에 공공투자에 접하는 어항사업의 비중은 매우 높고 재원대책 등 원활한 사업집행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도는 국고보조의 확대 등 총합적으로 지방부담액 경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망한다.

어항시찰

靜岡산업관에서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각각 여섯 코스로 나눠 어항 시찰에 나섰다.

필자는 대회 본부의 A코스를 시찰하였는데 A코스는 用宗어항, 燒津고기센터, 燒津어항, 靜浦어항 등 靜岡縣의 대표적인 어항들이었다.

최초의 방문선인 用宗어항은 靜岡市 유일의 어항으로서 마침 소멸 어업의 최성어기로서 하치장에 마련된 시찰단의 환영장에는 소멸의 시식장이 마련되어 있

었으며, 연간 약 14톤(7억7천만엔)의 소멸이 양륙 된다고 한다.

用宗어항은 112억엔의 양륙고를 올리고 있으며 대형선의 냉동참치가 주로 양륙되는 어항이다.

燒津어항은 연간 650억엔 연간 연 5,000척의 어선이 출입항하는 일본 굴지의 어항이다.

새로 만들어진 안벽에서는 대양어업소속의 390톤급 참치 선망어선이 냉동 참치를 양륙하고 있



燒津 고기센터는 T.V나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어 일본에서는 유명한 존재로 등장되고 있다.

이 센터의 전체적인 규모는 어식보급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구비한 매우 훌륭한 센터였다.



었으며 이 어항에 양륙되는 어종은 참치를 비롯하여 간고등어와 고등어 등 어종이 다채롭다.

시찰 코스 중 가장 관심을 갖는 곳이 燒津 고기센터였다.

燒津 고기센터는 T.V나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어 일본에서는 유명한 존재로 등장되고 있다.

이 센터의 전체적인 규모는 어식보급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구비한 매우 훌륭한 센터였다.

다양한 매장을 비롯하여 단체 입장자를 위하여 고기요리

를 제공하는 460석의 和風식당과 240의 홀석, 요리교실, 각종 회합, 세미나, 전시회 등 다목적 센터였다.

燒津시가 자본금의 반 이상을, 지선수산계 은행 등이 나머지를 분담하여 제 3 섹터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현 靜岡縣어항협회장인 服部 燒津시장의 큰 자랑거리이다.

마지막 시찰지 沼津市 靜浦어항은 伊豆半島 서쪽의 대표적인 어항이다.

伊豆해안을 따라 곳곳에 옷트항이 있으며 沼津에서만 옷트, 모타 보트가 1,000척 이상이라고 한다.

최근의 마린 레저의 열풍으로 어디까지가 어항이고 어디가 레저기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하며, 현재 무질서의 해양 레저도 어업과의 공존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어항은 연간 14억엔의 양륙고를 올리고 있으며 멸치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한다.

靜岡縣의 어항정비

가. 어업의 개황

본현은 일본본토 중앙부의 태평양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양선의 연장은 506km로서 많은 양항과 풍부한 어업자원을 갖고 있다.

또한 수도권, 중경권 등 대소비지를 동서로 갖추고 있으며 원양의 간고등어, 참치, 근해의 멸치류, 고등어, 연안의 멸치, 새우 등의 해면 어업을 비롯하여 양식업, 수산가공업, 유통업 등 다양한 수산관련 산업이 발달되

어 있다.

1987년도의 생산량은 39만3천톤, 생산액은 963억엔으로서 비교적 중고급 어개류를 중심으로 어업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해면어업의 생산량은 1987년도 37만1천톤으로서 순조롭게 증가하고 특히 근해는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연안어업은 약간 감소되고 있으며 근년에 어장의 정비 개발과 재배어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 어항정비

(1) 어항의 현황

靜岡縣의 어항은 해안선 506km와 천혜의 자연입지조건을 갖고 있어 전국의 원양어업기지, 燒津어항을 비롯하여 50개소의 어항을 갖고 있다.

그의 清水, 伊東, 御前崎 등 15개의 항만이 있으며 어업기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 현의 어항은 입지조건으로 보아 다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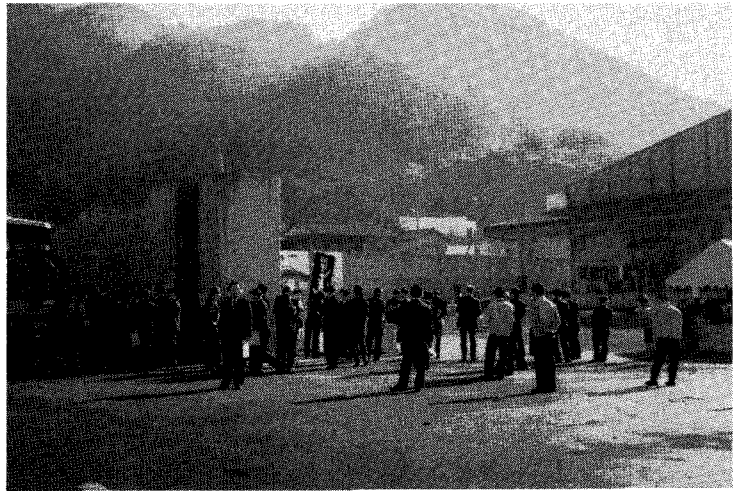
첫째, 伊豆半島 주변에는 35개의 지정어항이 있으며 그 70%가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급준한 지형으로 어업 이외에서의 생산수단은 결핍되어 있고 어업이 지역산업의 핵으로 되어 있다.

제 2, 3종 어항은 원양, 근해어업의 휴계준비항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해면양식업도 행해지고 있다.

다만 제 1종 어항은 5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패조류채취어업, 자망어업, 일본조어업 등 연안어업의 중심지로서 어항의 정



漁港에 揚陸되어 競賣前에 진열된 정어리앞에서



渭浦漁港의 海岸事業으로 構築된 海溢防壁앞에서

비수준은 낮다.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는 계절풍과 태풍 등에 의해서 파랑의 침입이나 월파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駿河灣 안쪽에서 御前崎까지는 燒津의 특정 제3종 어항을 비롯하여 10개의 지정 어항이 있다.

이 지역은 이 현의 중심지이

며 교통상황, 수산가공업의 입지상황 등이 좋아 清水, 御前崎의 항만에 이 현의 양륙량의 80% 이상을 올리고 있으며 일찍부터 원양, 근해어업의 기지로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수준은 비교적 높다.

다만 燒津, 用宗, 由比 등의 어항은 시가지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배후지가 좁고 어항으로서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도

있어 매립 등에 의해서 어항의 확대가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燒津에서는 지금까지 간고등어, 참치 어업기지로서 정비되어 왔으나, 최근 원양 간고등어 일본조 어선의 전환에 따라 해외 선망어선의 출입이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항의 확대, 어획물의 대량하치가 가능한 기능적인 어항으로 정비하고 있다.

셋째, 遠州灘에 면에 있는 5개 어항이 있다.

遠州灘을 어장으로 하는 2개 어항과 浜名湖를 어장으로 하는 3개 어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遠州灘에서는 소멸선인망, 소형저인망의 조업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특히 제4종 어항인 福田어항의 정비가 급무로서 외양에 면해 있는 관계로 매우 어려운 해상환경 하에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2) 어항의 정비

1951년도부터 1987년도까지 제1차에서 제7차까지의 어항정비 장기계획에 따라 어항정비는 수축, 개수사업을 합하여 총사업비 682억엔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타 사업으로서 어항국부개발사업을 1955년에서 1987년까지 실시한 35개항으로서 총사업비 약 34억엔.

어항관련도 정비사업을 1965년에서 1987년도까지 실시한 9개항이며 총사업비 12억 4천5백만엔.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을 1979년에서 1987년도까지 실시한 4개항이며 총사업비 12억 1천4백만엔.

어항환경 정비사업을 1980년도부터 1987년까지 실시한 2개항

으로 총사업비 4천 8백만엔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국고보조대상이 안되는 소규모 어항시설 정비와 유지수선에 대하여는 縣단독 정비사업 縣단독 유지수선사업, 소규모 국부개발 등에 의해서 1961년도부터 1987년까지 약 37억 1천만엔을 실시하여 수산업의 진흥과 어항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키 위하여 어항, 어촌의 정비를 진행하였다.

어항수축개수사업실시표(1987년까지)

(3) 제8차 어항정비 장기계획

제8차 어항정비계획은 1982년도부터 1987년도까지 실시한 제7차 어항정비 계획의 뒤를 이어 1988년도부터 6개년계획으로 제8

차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제8차 정비계획의 과제를 살펴보면

① 연안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적, 통합적 정비,

연안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수의 시에 걸쳐 있는 지역내는 연안어장 정비개발과 어항관계 사업 등을 일체적으로 행하는 연안지역 활성화 어촌 어장 정비개발 부록의 실시

② 재배어업에 대응하는 어항의 정비

증양식 관계시설을 구비한 어항의 정비를 추진하여 재배어업, 양식어업의 거점으로 한다.

③ 어항의 안전성, 기능성, 쾌적성의 강화

- 외곽시설 정비로서 항구, 항내의 정온도 향상

- 박지, 계선안의 질적확충 및 사용이 용이한 계선안의 정비

- 기능시설용지의 정비

- 전진기지 피난기지의 정비

- 어항주변의 환경보전

- 어선과 유어선의 이용조정

④ 정보화시대의 수산유통가공에 대응하는 어항정비

종래의 수산유통가공과 더불어 활어유통에 대표되는 고선도 어패류의 고속수송, 고차수상가공에 대응하는 시설, 수산유통정보처리시설, 주차장용지 등의 정비를 행함.

⑤ 어촌환경 개선을 위한 어항정비

어촌정비로 효율적인 토지를 창출하여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 어항환경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어촌의 재개발을 추진함

靜岡縣은 縣관리어항 8개, 市町村관리어항 42개 계 50개의 어



燒津에서는

지금까지 간고등어,

참치 어업기지로서

정비되어 왔으나,

최근

원양 간고등어 일본조

어선의 전환에 따라

해외 선망어선의 출입이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항의 확대,

어획물의 대량하치가

가능한 기능적인

어항으로 정비하고 있다.



항이 있으며 본정비계획 책정에 있어서 어업자 및 지선市町村 등의 의견과 요망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사업의 계획적 효율적인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표 8차어항정비장기계획)

(4) 관련사업계획

靜岡縣은 대풍상습지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지진이 예상 되므로 이상고조나 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파랑에 의한 시설의 재해, 해안침식의 위협 등으로 항시 재해발생이 일어나기 쉬운 자연조건하에 있다.

따라서 재해에서 국토를 보전하고 원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해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4차 해안사업 5개년계획(1986년부터 1990년까지)은 1986년 2월 25일에 각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제4차 계획에서는 「선적방호방식」에서 「면적방호방식」으로의 이행을 계획목표로 보전시설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결 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가장 심각했던 식량난을 바다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항을 적극 축조했으며 그와 같은 열의가 현재까지 연면하여 어항사업비가 2,025 억엔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항 증시는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더욱 주창했다는데 더욱 의의가 깊다고 말할 수 있다.



日本이 心血을 기울여 最新漁港으로 建設한 長崎漁港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국토 여건상 바다에서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수산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어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 어항법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는 열성까지 보였다.

현재도 국회에 어항정비촉진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합회에 가입한 230여명의 의원들은 해마다 어항에 대한 예산은 물론 제도정비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특히 최근의 어항기능이 산업화에 부응, 어선을 보호하고 어획물을 양육하는 단순기능 이외에도 늘어나는 증양식 시설을 보호하는 역할과 어촌관광을 비롯하여 어민의 어촌 정착을 위한 어촌생활환경개선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어항의 정비추진에 어민, 정부, 국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음을 이번 어항대회에서 더욱 절감하게 느꼈다.

현재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 어항은 신해양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어서는 일본이 이미 40여 년전에 어항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민과 더불어 정부, 국회가 일체가 되어 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어항관련단체를 구심점으로 어민의 총의를 결집하고 정부와 국회가 공동의식을 갖고 이를 추진할 시대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일본전국 어항대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어항발전에 참고가 될 교훈을 많이 얻고 돌아왔다. 4